



## ※ 등급정보 (닭고기)

▷ 15개 업체에서 생산한 2백67만7천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1등급은 89만수(33.2%), 1등급은 1백54만1천수(57.6%)를 차지, 전월(14개 업체)대비 34만7천수(14.9%)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8년 1월~10월	20,600,923	6,402,509	11,627,382	2,571,032
	(100.0)	(31.1)	(56.4)	(12.5)
'08년 9월	2,330,249	819,627	1,337,083	173,539
	(100.0)	(30.3)	(57.0)	(12.7)
'08년 10월	2,676,819	889,727	1,540,901	246,191
	(100.0)	(33.2)	(57.6)	(9.2)

## ※ 축산정보 (닭고기)

### ‡ 美 닭고기 생산량 5년 연속 감소

상품시장 분석업체 '앨런데일'(Allendale)의 리치 넬슨 시장 분석가는 최근 "우리는 조만간 대형 양계업자들도 닭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양계업자들이 키우는 닭의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닭고기 공급 감소는 물론 달걀 공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넬슨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결국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반 사이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닭고기 생산 감소는 닭가슴살 품목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계업자들의 '축소 경영'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 및 사료값 상승 등에서 기인한 것. 이는 결국 닭고기 생산업체들까지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 미국 육류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닭고기 생산업체인 필그림프라이드(Pilgrim Pride) 사는 최근 닭고기 생산량을 줄였다. 회사 측은 자사의 주가가 2주 전 대비 70% 하락했으며 앞으로 더 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향후 미국 닭고기 시장에 큰 불황을 예측케 했다.

### ‡ 양계협, "계열농가 96%

#### 현실 만족 사실과 달라" 강력 비판

대한양계협회가 국정감사에 임한 하림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왜곡한 하림의 독단적인 논리가 신성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우리 육계농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제 더 이상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하림의 600 사육농가 가운데 96%가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며 "하림 계열농가의 소득이 타 농가에 비해 2배 이상이고 평균 농가소득이 8천 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5%는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계협회는 사육농가의 96%가 현실에 만족한다고 증언해 놓고 사육농가들에게 동의서를 서명토록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림 계열농가들의 소득이 높다면 왜 이탈농가가 생기고 원망에 찬 눈초리를 보내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